

나주 남평읍, 워터파크와 버스킹 공연으로 ‘즐거운 여름 나기’

지석천 친수공간, 물놀이·버스킹 호평



남평읍 주민자치위원회 주최로 지석천 중앙교 아래에서 열린 버스킹 공연 사진 /나주시 제공

21일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나주시(시장 윤병태)에 따르면 남평읍은 최근 지석천 친수공간 일원에서 남평읍지역발전협의회 주최로 ‘2026 남평읍 우리동네 워터파크’와 남평읍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한 버스킹 공연을 펼쳐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시원하고 즐거운 여름을 선사했다.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운영한 ‘우리동네 워터파크’는 지석천 친수공간을 활용해 어린이와 가족들이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로 무더운 여름철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도심 속에서 즐기는 특별한 휴식과 여가의 기회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행사장에는 안전요원과 운

영 인력을 배치하고 안전관리 및 행사 보험 가입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 어린이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와 함께 워터파크 행사장 바로 옆 중앙교 아래에서는 남평읍 주민자치위원회가 마련한 버스킹 공연이 펼쳐져 물놀이와 음악이 어우러지는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다양한 공연과 음악이 지석천변에 울려 퍼지면서 가족 단위 방문객과 주민들이 함께 공연을 즐기며 행사장에 활기를 더했다.

이번 행사는 지석천이라는 지역의 자연 자원을 활용한 물놀이 행사와 주민자치위원회의 문화 공연이 인근에서 함께 진행되면서 주민과 관광객이 여가와 문화를 동시에 즐길 기회를 제공했다. /서선택 기자

담양군, ‘대숲맑은 조기햇살’ 올해 첫 수확

영산강 시원의 청정지역 담양에서 생산되는 ‘대숲맑은 조기햇살’이 지난 20일 봉산면 삼지리에서 올해 첫 수확에 들어갔다. 이번 수확하는 벼는 농촌진흥청이 육종한 조생종 ‘해답쌀’로, 밥맛이 좋고 단백질 함량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올해 대숲맑은 조기햇살단지에는 63농가가 참여해 43ha 규모로 재배하고 있다. 수확한 벼는 담양군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전량 산물벼로 수매한 뒤 가공을 거쳐 10kg 단위로 포장해 전국 농협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군은 조기햇살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금성농협 공동육묘장을 활용해 조기 육묘를 실시하고, 저온으로 인한 냉해 피해 예방에도 힘써왔다. /강종연 기자

화순군수, 전남광주통합특례시장에 지역 현안 건의

화순군(군수 임지락)은 21일 임지락 군수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면담을 갖고, 화순군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며,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임 군수는 이번 면담에서 “우리 군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한 광주 군공항 부지 활용 계획을 적극 환영하며, 전남광주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겠다”라며, “동북면 중축을 비롯한 지역 현안은 화순군민의 희생이 수반되는 만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상생 대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화순군은 주요 현안 해결과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호경 기자

영광군, ‘축산 맞춤형 컨설팅’으로 한우농가 지원

한우 사양·번식·질병관리 등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



영광군이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영광군청 제공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난 20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과 연계하여 한우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축산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한우농가가 현장

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전문적인 사양관리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초빙해 집합교육과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컨설팅 주요 내용으로는 ▲번식 및 번식우 관리 ▲송아지 및 육성우

관리 ▲비육우 사양관리 ▲사료·영양관리 ▲질병 예방 및 위생관리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 관리 등 한우 사양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술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교육 후에는 농가에서 평소 궁금했던 사양관리와 번식, 질병관리 등에 대해 전문가와 직접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마련해 농가별 애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사양관리 기술을 공유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농가는 “평소 농장에서 궁금했던 사료급여와 번식관리 등에 대해 전문가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농장 사양관리에 적극 활용해 한우의 건강과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앞으로도 전문기관과 협력해 한우농가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진기 기자

장성군, 여성 농업인 위한 ‘찾아가는 교육’ 호응

여성농업인센터, 25일까지 영농교육...농업정책·지원사업 안내

장성군 여성농업인센터가 운영 중인 찾아가는 영농여건개선교육이 여성 농업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02년에 설립된 장성군 여성농업인센터(남면 시목1길)는 여성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고충 상담과 영유아 보육, 방과후학습 프로그램 등도 제공해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 조성을 뒷받침한다. 전국에 25곳이 있으며, 전남광주에선 장성을 포함해 총 4곳이 운영 중이다.

이번 영농여건개선교육에선 △농업인 기준 및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농업인 수당 및 농업인 기본소득 설명 △노동력 절감 장비 사용법 △농작업 대행 지원 안내 등 여성 농업인이 알아두면 좋을 각종 정책과 지원사업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농업일지 사용법, 건강 관리 등 일상적인 영농활동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안내한다. 지난 8월 4일부터 시작해 25일까지



삼서면 유평마을 교육 현장 사진 /장성군 제공

동화면과 삼서면 일대 23개 마을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농사와 육아로 바쁜 여성 농업인들을 직접 찾아가 필요한 정책을 안내하고 있어 호응이 높다”며 “앞으로도 여성 농업인들이 걱정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여성 농업

인들이 정책과 지원사업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제 영농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해 교육 참여가 어려운 여성 농업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김재섭 기자

황토갯벌에서 자라는 농수산물

양파, 낙지, 고구마, 송어 등 자연의 보고... 황토로 무안